



2026 VISION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성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성경이야기

안녕하세요, 친구들! 나를 속상하게 한 친구가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친구가 내 장난감을 빼앗거나, 나를 놀리거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도 그 친구랑 안 놀 거야!” 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때로는 “나도 똑같이 해줄 거야!”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길 원하세요.

오늘 말씀에는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이 나와요. 압살롬은 아빠인 다윗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궁을 떠나야 했고, 결국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기 전, 다윗은 요압과 지휘관들에게 특별히 부탁했어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압살롬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큰 잘못을 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내 아들이니까 꼭 살려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 중에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가다가 큰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리고 말았어요. 한 군인은 압살롬을 발견했지만 다윗 왕의 명령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해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압은 다윗의 부탁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압살롬은 죽게 되었어요.

친구들,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한 압살롬까지도 아끼고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미워하기보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친구가 내 장난감을 빼앗거나 동생이 나를 속상하게 해도 똑같이 괴롭히지 말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선택해 보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말해 볼까요?

“나를 속상하게 한 친구도 사랑할래요!”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예배 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다 같이

말씀 봉독 사무엘하 18:1~15절 다 같이

설교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요 설교자

말씀 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 같이

- ★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양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세요.

친구가 나를 속상하게 해도 미워하거나 똑같이 괴롭히지 않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사랑을 선택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다윗은 군인들에게 압살롬을 어떻게 대하라고 했나요?

2. 친구가 나를 속상하게 할 때 우리는 미워해야 할까요,
사랑해야 할까요?